

[순모임 교재]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라

에베소서 3:1-13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존을 넘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생존자'와 '사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불꽃처럼 인생을 불태운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1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 나는 지금 생존자의 삶과 사명자의 삶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 합니다. 세 가지 선물은 무엇입니까? (6절)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후 나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러한 변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3. 바울은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로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8-9절) 이번 한주간 가정, 직장, 교회에서 생존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